

연말할인행사로 소비자 유혹하는 온라인 몰

자카르타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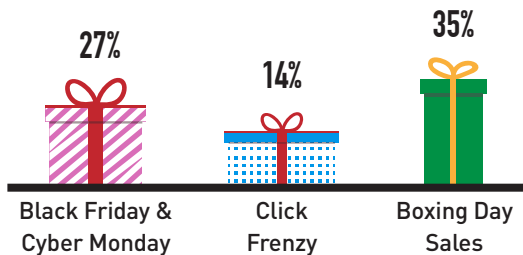
연말 온라인 쇼핑시즌 시작

• 연말이면 호주 온라인 쇼핑몰들의 세일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가격비교사이트 『FINDER』에 따르면 호주 성인 1명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지출하는 금액은 464달러(약52만 원)다. 소비자들은 연말 온라인 쇼핑몰 세일이벤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지출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는 식음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적 축제처럼 번지는 온라인몰 할인행사

-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진행되던 박싱데이와 같은 쇼핑 이벤트가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Click Frenzy, Cyber Monday와 같은 온라인 전용 쇼핑 이벤트도 생겨나고 있다.
- 또한 각국 온라인 쇼핑몰 할인이벤트를 기다리는 해외 직구 소비자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러한 빅 이벤트 기간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축제처럼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식음료업계에서는 호주의 연말할인 이벤트기간을 숙지하고 이를 대비한 각종 특가상품과 연말특수식품, 벌크형태로 포장된 제품들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등 온라인 쇼핑이벤트와 연계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2017년 기준 주요 온라인쇼핑몰 판매실적 성장률



11월에 열린 온라인 몰 세일이벤트

11월 11일
싱글즈데이
(Single's Day)

숫자 1이 4개 겹친 데서 유래한 '싱글즈데이'는 중국에서 출발한 최대 쇼핑 성수기로 호주에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소비 지출액을 기록.

11월 13일
클릭 프렌지
(Click Frenzy)

24시간 온라인 세일 이벤트 '클릭 프렌지'는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를 벤치마킹한 것임. 2012년 첫 출시 당시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마비돼 전국 마비 세일(sale that stops a nation)이라는 별명을 얻음.

11월 23일
블랙 프라이데이
(Black Friday)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전역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연중 최대 세일 행사임. 호주에서도 갈수록 이벤트 참여율이 증가해 2017년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2억 달러(약1,624억 원)의 소비 지출액을 기록했음.

11월 26일
사이버 먼데이
(Cyber Monday)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첫 번째 월요일에 진행되는 이 행사는 유통업계가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 할인 이벤트로 호주에서도 이벤트 실시.